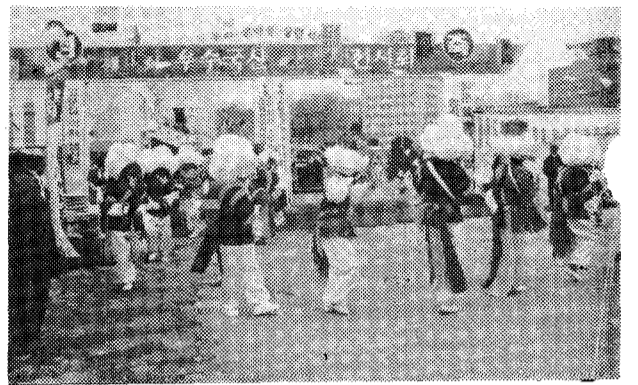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 천마.



◇임연학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회식 행사가 시작되기전 전북 농악대의 흥겨운 풍물놀이.



◇김인옥소장이 애써 준비한 호박 두덩어리.



◇개회식 행사가 끝난후 내빈들이 전시장을 관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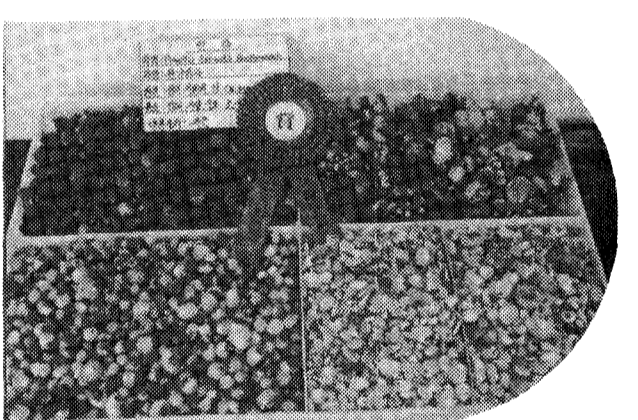
◇품평회를 통해 우수약재 선정 시상식을 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받고 있는 정형모부회장.



◇천마술.



◇수입약재와 국산을 알기쉽게 비교전시한 수입 국산 비교전시관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반하 충남 서산 이관구소장이 출품했다.

고품질 약재 생산 당부

○...지난 11월 28일 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제4회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 전라북도 품물패가 흥을 돋우는 가운데 개회식 행사를 시작으로 제4회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 막이 올랐다.

○...개회식에는 농림부 원예특작과 강상헌 과장, 보건복지부 한의약담당관실 김용호 과장을 비롯 경동약령시협회 운영진 회장등이 내빈으로 참석. 이호계 농림부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상헌 원특과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한약재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못지않게 생산비를 절감하고 좋은 품질의 약재를 생산함으로써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이겨야겠다는 농업인 스스로의 굳은 의지와 노력이 합쳐질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연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품질의 국산 생약재가 무분별한 값싼 수입 약재의 범람으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난 94년 이래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도 바로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우수출품약재 시상

○...개회식 행사에 앞서 이루어진 국산 한약재 품평회에서는 강원도산 특대황기, 경북의 토곽향, 전북 자연산 오미자 등 다수 약재가 우수약재로 선정돼 농림부장관상과 보건복지부장관상 협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시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농림부장관상>

△경기도=신현석(황기, 양평군) △강원도=임완수(특황기, 태백) △충북=신상섭(강작약, 단양군) △충남=이관구(반하, 서산시) △전북=유재균(산황정, 정읍시) △전남=최성기(금은호, 보성군) △경북=엄길생(감국, 포항시) △경남=김정만(오미자, 고성군) △제주도=강경후(백년초)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김성배(산사, 이천시) △강원도=황성구(두충, 원주시) △충북=장지홍(하수오, 단양군) △충남=성박덕(구기자, 예산군) △전북=이현호(오미자, 무주군) △전남=정형모(목단피, 보성군) △경북=

배성한(곽향, 경산시) △경남=이영갑(섬작약, 통영시) △서울=이영화(중앙본부)

<협회장상>

△경기도=이상혁(방풍, 포천군) △강원도=김석화(신당귀, 홍천군) △충북=이한승(산약, 제천시) △충남=김병수(오가피, 청양군) △전북=이정진(장리삼, 진안군) △전남=박도순(황정, 고흥군) △경북=조원제(황기, 경주시) △경남=장운식(택사, 하동군)

○...특히 이번 제4회 전시회는 농림부, 한국방송공사 외에도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행사를 후원 눈길을 끌었다.

한방요리관 선보여 이채

○...국내 재배되거나 채취되는 약재 1백50여종이 건재, 생물로 다양하게 선보인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9개 도별 전시관을 비롯 한약재 가공식품 8개관, 특히 한방요리관이 처음으로 선보여 이채를 띄웠다.

○...제4회 우수국산 한약재전시회 기간 중 가장 돋보였던 코너는 수입약재와 국산 약재를 비교해 놓은 비교전시관. 3백60여

종의 생약재 식물표본을 비롯 수입, 국산 약재 1백여종이 비교전시된 이 코너는 관련기관이나 연구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비롯 국산한약재에 관심이 많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볼거리를 제공, 관심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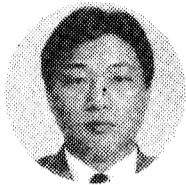
예년보다 썰렁한 분위기

○...사회전반적인 불황탓인지 이번 전시회는 예년보다 많이 썰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전시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예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적은 숫자였고 설상가상으로 기습한파까지 덮쳐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속에서 비바람까지 가세하자 전시장은 운통 '팽귤나라'. 예년수준에 맞춰 지방에서 많은 물량을 포장작업해 출품한 회원들은 황당함에 허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전시회가 예년과 다르게 성황을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회원들은 경기 불황 말고도 홍보부족을 꼽기도. 행사기간 중 이에대한 대책회의를 여러차례 갖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별다른 뾰족한 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사람 사람들

울무시험장 특강



■임연학
회장은 구
랍 16일 경
기도 연천
울무시험장
에서 열린
울무연구회

연말전산 총회에 강사로 참석 경기북부지역에 알맞는 고소득 약초소개 및 국내유통현황을 주제로 특강했다. 임회장은 이날 특강에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용기를 잃지 말고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품질 약재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 지부회의



■문대규
충남도지부
장은 구랍
21일 온양
에서 도지
부 정기모
임을 갖고

97년 충남도지부 운영사항과 지난 제4회 전시회를 결산했다.

부음

김인옥 소장 교통사고로

■김인옥 경기도 연천군 공판

장장이 지난 11월 26일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

강원도 지부회의



■임원수
강원도 지
부장은 구
랍 11일 춘
천에서 강
원도 정기
지부회의를

갖고 제4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행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대책안을 논의했다.

전북도 지부회의

■이승엽 전북도지부장은 구랍 21일 전주에서 전북도지부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지난 전시행사에 대한 자체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독자편지

토곽향재배소식 반가워 재배곽향, 배향초 인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에 이상인 교수입니다. 97년 11월 1일자 한국생약보에 경북 배성한 선생님께서 곽향 Agastache rugosa(Fischer et Meyer) O.Kuntze을 재배하고 있으시다는 기사를 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대학에서도 중국으로 부터 수입되고 있는 곽향의 기원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품질면에 있어서도 매우 불량한 약재가 수입되고 있어 한의 학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배향초를 재배 또는 채취하여 양질의 곽향이 유통되었으면 하는 바

램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재배하고 계시는 곽향의 종이 우리나라의 산야에 야생하고 있는 배향초인지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식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향초를 재배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곽향의 한약재가 중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우리 교실에서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곽향의 소비를 위해 학술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 본초학교실〉

토곽향은 확실한 배향초

제가 재배하고 있는 토곽향은 배향초입니다.

지난 91년 농촌진흥청에서 토곽향 종자를 구입해 처음으로 시험재배를 시작했습니다. 92년부터 중국산과 국산을 동시파종 시험재배 하면서 비교 관찰한 결과 여러 교수님들로 부터 토곽향(배향초)에 대한 뛰어난 약효능을 설명듣고 지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재배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내년에는 약 20만평 정도로 확대 재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것에 관심을 갖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힘을 내서 우리생약 살리기와 고품질약재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성한 경북 경산시 중방3동 860-4〉

김인옥 소장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해 11월 우리는 경기도 연천군 공판장장으로 있던 김인옥씨를 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오전 7시경 황기 수확작업을 위해 10여명의 일꾼들을 태우고 황기밭으로 향하던 김인옥

식지 답사행사 준비에도 현지 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재작년 여름에는 연천지역 대홍수로 황기밭이 몽팡 물에 잠기는 바람에 종자비도 건지지 못할 만큼 큰 수해를 입었음

회때 경기도관에 전시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유난히 큰 호박 두 덩어리. 그 호박 두덩이도 김소장이 애써 준비한 출품작이었습니다. 눈비가 번갈아 내렸던 행사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던 호박 두덩이는 살아생전 성실함으로 일관했던 김소장을 대신하는듯

그는 떠나고 주인 잃은 호박 두덩이만...

씨는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려든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 아까운 생을 너무도 허망하게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평소 김소장은 협회와 도지부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 해냈으며 지난 여름 연천 보개산에서 개최된 자생약초 서

에도 하계수련회 행사에 참가해 노래실력을 한껏 발휘, '이름 모를 소녀'를 열창하던 그의 모습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김소장은 이번 제4회 전시회를 앞두고도 연천지역에서 나는 다양한 특산품들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난 전시

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주인잃은 호박 두덩어리. 60kg의 호박보다 더 큰 빈자리를 남기고 떠나버린 그, 김인옥 소장의 명복을 빕니다.

〈윤창권 경기도 의정부시 공판장장〉

중앙 회원 가입 안내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열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 상

농촌지도기관, 영농법인, 작목반, 생약분야단체, 학계, 제약 및 식품회사, 우리생약에 관해 관심있는 모든분

혜 택

- 1) 생약재배에 관한 기술지도
- 2) 생약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 3)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5% 할인
- 4) 생약분야 정보제공
- 5) 한국생약보(시세표 포함) 제공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본부에 비치)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증명사진 2매
- 4) 회비 :
 - 개인 : 월 3,000원×12개월 = 36,000원
 - 가입비 10,000원 합계 46,000원
 - 단체 : 월 10,000원×12개월 = 120,000원
 - 가입비 10,000원 합계 130,000원

가입문의 : 협회사무국 전화(02) 967-8133